

무용 교과교육의 개념과 가치

*
한혜리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무용(전공)교과의 교육적 위치
	1. 학교 무용**
	2. 무용 교육
	III. 무용(전공)교과의 내용 구조
	1. 무용(전공)교과의 학문적 가치
	2. 무용(전공)교과의 내용과 접근 시스템***
	IV. 결론
	참고문헌

*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무용학과 교수

** danse d'école의 번역이다.

논문투고일 : 2022.11.05

***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교수법(혹은 교수-학습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논문심사일 : 2022.11.08

계재확정일 : 2022.12.13

Concept and value of dance curriculum education

Han, Hea-ree · Kyungsoong University

The dance curriculum(major) education chooses the educational content following the academic value of dance, and the educational content realizes the academic value through the curriculum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academic value of dance, this study presented the concept through the value of contemporary dance major (curriculum) education by connecting the content of dance curriculum and curriculum educational system,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rawn as follows.

Firstly, the dance education, that prescribes body as the subject of perception and the sensed cognition as spirituality, should be based on the content of self-consciousness through the formation of self-awareness and self-esteem in the system of introspection and voluntary participation.

Secondly, the social concerned dance of empathy and consideration should be based on the content including the process of discovering the essence of social problems in the macroscopic perspective and chances to experience various values with the empathy through cultural contact in each region in the system of observation and divergent thinking.

Thirdly, in the human-centered dance that requests the elaborate representation that excludes nobody in society with inherent anxiety, the technology should provide the value of security as a hidden assistant based on the content of organic convergence with communication media in the organic connection system of electronic/digital media.

〈key words〉 dance curriculum education, social concerned dance, body, self-consciousness

〈주요어〉 무용교과 교육, 사회관여 무용, 인식주체로서의 몸, 자의식

교육이 가치를 다루는 일이라면 무용 교육은 무용의 가치를 연구하고 실천 방법을 연구하는 무용 전문가¹⁾의 무용에 대한 개념에 의존한다. 무용의 가치와 그 실현 방법을 연계하는 무용 교육의 연구 영역에서, 무용(전공)교과는 무용의 학문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룬다. 무용교과의 개념과 가치를 주제로 한 본 연구는 무용 교육의 가치가 무용의 사회적 역할(혹은 기능)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하였다. 이런 논리 체계에서 무용교과의 개념은 사회적 필요를 근거로 한 것이며 가치는 교육적 기대로 대치할 수 있다.

신분사회를 지나 평균과 보편이 중심 주제였던 교육은, 보편과 평균 기준을 제시하고 제도로 구축하는 엘리트 지식사회가 주도하였다. 단일 기준에서만 가능한 보편과 평균의 교육은 신분과는 또 다른 위계질서를 만들었다. 20세기 중반까지의 지식 위계질서는 기술 주도의 삶이 보편화된 지금,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보망의 접근성으로 대체 되고 있다. 예측이 불가능했던 현재, 무용 교육은 과거의 틀을 변형, 개선하는 것으로는 생활환경의 변화와 함께 생동할 수 없게 되었다. 비 문자 지식 기록으로서의 예술에서 무용이 타 장르와의 방법적 차별성과 도구적 독자성만으로 가치를 탐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사회전반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고 해결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에서 구현되는 무용들은 다학제적 시각에서 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융합적 사고력(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즉 이 시대의 무용 전문가란 사회 제도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시스템으로 마주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무용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다.

사회적 기능으로 보는 무용의 가치는 무용의 역사이기도 할 것이다. 신분 사회에서 무대(공연)무용이 체제 선전의 기능이 있었다면, 부르주아 계층이 일종의 프로슈머의 역할을 하는 경제 계급사회에서는 취향에 의존하는 경쟁구도인 스타시스템에서 무용(작품)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되었고, 산업혁명 이후 일반 생산품과 구별되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무용은 대량생산에 대립되는 유일성과 독창성의 가치 부각으로 비 경제성을 내포한 소량(개별적)의 희소가치를 동반한 시대이다. 후기 산업사회라고도 불리우는 독창성, 유일성(혹은 희소성) 추구 이후의 시대는 기계화, 도시화 등의 환경 변화가 계층 간의 갈등, 빈곤, 인간 소외, 범죄 등의 사회 문제를 동

¹⁾ 무용교사, 무용교육자, 매개자(intermediary), 촉진자(facilitator),發起人(promoter), 애니메이터(animateur) 등

반하였고 이러한 사회문제 제기와 해결에 무용이 관여하기 시작했다²⁾.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무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제도에서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 자체 개발된 연구 시스템에서 사회 가치를 실현하고 무용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포용 국가를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무용 교과교육의 개념과 가치를 주제로 한 본 연구는 ‘고왕지래 古往知來’의 접근 방식을 통해 교육기관에서 전공교육으로서 무용의 가치 제고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무용 전문가들에게 이정표가 발견되기를 기대한다.

무용교과 교육의 개념과 가치의 제고를 위한 연구는 교육기관과 유사 관련 기관들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에서 무용의 가치를 통한 개념 추출을 시작으로, 교육기관 이외에서 무용의 생산과 효용을 통해 무용 교육의 기능을 탐색하여, 무용전공 교육으로서 무용교과의 교육 내용을 통해 무용교과 교육 즉, 무용 전공 교육의 가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무용 교육 기관은 국내와 국외를 기관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회 제도에서 무용의 효용을 기능과 가치로 해석하고, 가치 실현의 전문가들이 매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영역에서 무용의 기능을 무용 교육의 가치로 제시하였다. 오늘날 삶의 전반적 영역으로 확산되어있는 무용은 그 구현 시스템이 다양하고 내용이 통합적이어서 역사적 기준으로는 생소한 시스템에서의 무용을 인식하기 어려운 지금, 동시대의 무용을 발견하는 능력 다시 말해 가치를 부여하는 다학제 융합적 사고의 무용 전문가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전문가 양성 교육의 이정표 기능에 연구의 목표를 두었다.

II / 무용교과의 교육적 위치

무용교과는 학문이 분류한 무용의 영역과 개념을 전제로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에 교육내용으로 개설된다. 한국을 포함한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에서의 독립교과목으로의 무용교육은 전문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³⁾.

²⁾ 이런 무용의 대표적인 것이 community dance로 영국의 Laban center(1976)에 전공교과로 처음 개설되었다(김화숙 외, 2012:6 6참조).

³⁾ 신정희(1996, 2003, 2013, 2015), “전문무용교육”, 무용교육이란 무엇인가?, 무용교육론(2013, 2015). 참조

1. 학교 무용

한국의 경우 무용교과 교육은 국가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예술중학교’와 ‘예술고등학교’, ‘전문대학’(college), ‘대학교’(University), ‘한국예술종합학교’ 그리고 무용 아카데미에서 이루어졌다. 무용 아카데미는 무용단체 산하의 ‘유니버설 발레아카데미’(1994 설립)와 같은 사설교육기관과 ‘국립발레단 부설발레아카데미’(1993년 설립)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영재교육원’(2008년 설립) 등의 국공립 부설교육기관 그리고 ‘RAD Royal academy of dance’(혹은 서울발레아카데미 1992년 설립), ‘바가노바 발레아카데미 Vaganova ballet academy’(2002년 설립)등의 국외 무용아카데미의 분원으로 분류된다.

중국의 경우는 ‘북경무용대학’(Peking dancing academy, 1954년 설립), ‘상해시 무도학교’(Shanghai dance conservatory, 1960년 설립)가 러시아는 ‘볼쇼이발레스쿨 Bolshoi ballet school’(1805년 설립),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 Vaganova ballet academy’(1801년 설립)가 있다.

유럽의 무용 전문교육기관으로 조사되어 기록된 것 중 “(...)조기교육에서부터 직업 창출에 이르기 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 중심의 네트워크를 지닌 유럽의 시스템”(신정희, 2015: 75)⁴⁾에서 제시된 지역은 핀란드로 무용트레이닝 코스를 제공하는 ‘투르크 컨서버터리 Conservatory of Turku’, ‘오울루아 쿠오피오 예술학교 Oulu and Kuopio school of art’, ‘투르크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of Turku’, ‘피니쉬 국립오페라 발레학교 Finish national opera ballet school’이 조사되었고, 프랑스의 무용학교는 문화부 (ministère de la culture) 산하의 ‘국립고등 음악·무용 공세르바투와르’(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la musique et de la danse)⁵⁾, ‘파리 오페라 무용학교’(paris opéra ballet school), 앙제 국립무용센터(centre national de la danse d’Angers)와 사설 교육기관으로는 ‘칸느 고등에콜(l’écôle supérieur de la danse du Canne)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는 공립학교로 ‘존 뉴마이어 발레센터(Ballet zentrum Hamburg Newmeier)’와 무용스튜디오가 창립한 볼크방 전문학교(Folkwang hochschulessen(1927년 설립)가 있다. 영국은 ‘Royal ballet school’과 ‘Laban center’에서 무용이 전문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2. 무용 교육

무용 교육은 무용의 시대적 가치(혹은 개념)와 교육의 정치 경제적 범위와 밀접하

⁴⁾ http://www.artscouncil.ie/Publication/curriculum_dance.pdf를 참조.

⁵⁾ Paris와 Lyon 두 곳에 있다.

계 관계 맺어지는 분야이다. 무용은 문화에서 성장하여 다시 그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Kealiinohomoku, J.(1969:24-32)⁶⁾는 모든 무용이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예술, 종교, 즐거움, 치료 등을 목적으로 무용을 배우는 것과 문화를 배우는 것을 동일하다고 보았다. 조안 켈리이노호모쿠의 연구 발표 보다 조금 전인 1951년에 출판된 Camus, A.의 『L'homme révolté』에는 “미는 상상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의 대상일 것이다. 예술은 모든 시대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그 시대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니 마르크스의 말대로 그것은 지배 계급의 특권적 가치를 표현한다”(김화영 역, 2021:439)는 예술에 대한 시대적 가치가 나타나 있다. 공연 무용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였다면 현대 사회에서 무용은 다양한 목적으로 생활의 질적 향상에 관여하고 있다.

과거 창작인과 관객의 관계는 부르주아계층의 생성 이후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무용은 경쟁구도속에 있게 되었다. 전문인과 비전문인의 자격과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분업 사회에서 전문가의 무용은 교육적 검증(자격증)이 필수적이었다.

교육 기관의 무용교과는 시대가 제시하는 일정한 기준과 실현의 방식이 존재하는 장르 무용으로 무용전공 교육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는 평등할 수 없으며, 교수법은 훈련법으로 대체된다. 그렇다면 문화상품 또는 무용작품으로서의 공연 무용의 경쟁력이 스타 시스템에 의존했던 시대에 소수의 스타 배출은 일반(혹은 국민 보통)교육 시스템으로는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 경제 성장이 발전의 지표로 장악하던 시대에 국민 보건과 건강을 전제로 한 신체교육은 일반교육의 필수 내용으로 무용은 체육교과에서 신체 기능성을 목적으로 교수-학습되어졌다. 한국은 창작무용과 민속무용을 내용으로 한 체육교과에서의 무용 교육이 오래 지속되었다. 그 시작은 소학교와 교육회 등의 교육단체, 보육학교, 일반단체, 학원 혹은 신문사 산하 연구회 등의 기관이 주관한 무용 강습회에서의 ‘체육무도’, ‘체육무용’이라는 제목을 단 강습회이다. 학교에서는 학예회를 통해 원무(혹은 윤무)를 매스게임식으로 변형한 단체무용(군무)이 기록되어 있다⁷⁾. 시대와 함께하는 무용은 계획하고 구축한 시스템에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가치를 추구하는 무용이 시행착오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성공한 시스템은 제도화로 피드백을 주는 순환구도이다. 디자인 하지도 않고 시스템을 구축하지도 않는 생물학적 진화वाद 같이 무용도 역사적으로 생존하는데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고 일정기간 지속(제도화)한다. 따라서 무용 교육이 사회 제도에서의 무용이라면 무용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논리적이지 않고 내용

⁶⁾ Kealiinohomoku, J.(1969),“an anthropologist looks at ballet as a form of ethnic dance” (en.m.wikipedia.org)

⁷⁾ 김운미(1998:65, 238-241)

적으로 일관적이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체험하거나 일반 역사적 지식으로 학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무 기억에나 접근할 수 있는 인간의 임의 접근⁸⁾ 능력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계속된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새로운 무용과의 마주함을 역사 기록으로 기억한다. 하나는 1921년 ‘해삼위(블라디보스톡)조선학생 음악단 모국 방문 공연’ 둘째로는, 1925년 ‘이병삼 구미무도학관’ 창설, 세 번째는 1926년 경성공회당에서의 ‘이시이바쿠(石井藤) 무용공연’ 넷째는 1930년 ‘최승희 무용 발표회’이다. 실제로 공연을 관람한 관객의 수 보다 지금 우리가 가진 무용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미래 무용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는 더 큰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곧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무용은 각각의 개념과 기대를 형성한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주권은 물론 각종자원과 인력, 노동력을 일본에 수탈당하는 식민국가로서의 수모를 역사의 한 지점에서 경험한 나라이다. 인류의 국가들이 유사한 교육 체제에서 동일한 세계 시민의식을 향하고 있는 지금, 동시대 무용의 가치와 내용은 지역의 역사를 배경으로 각기 다른 성향과 방법을 갖게 되고 또 공통의 목표를 향해 독자적 교육 방법을 고민한다. 동일한 교육체제에서 각기 다른 신념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기대 심리 때문이다. 개인적 신념의 실현 방식으로서의 무용은 가치 공유를 목표로 사회 제도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구현되고 있다. 제도에서의 무용은 다수를 전제로 한다는 것, 집단의 완전한 동일(질)성의 불가능함을 불필요함으로 인식하게 하는 사회 계몽과 선도가 사회 가치 실현임과 동시에 무용의 교육적 가치 창출이다.

일반 교육에서는 무용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개별적 참여의식을 장려한다. 각각의 나라들은 각각 다른 무용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을 제외하고⁹⁾ 대부분(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들은 비교과로 예술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술과는 별도로 문화재와 미술관(박물관), 디자인을 과정에 포함하고 취미예술, 과학, 기술 문화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¹⁰⁾. 문화부와 교육부의 협력(partnership) 등이 사례로 다른 국가에 영향력을 미쳤다.

각각의 사회문화를 배경으로 무용의 접근성을 높여가는 시대 환경에서 교육으로의 접근은 모든 사람들이 무용과의 만남을 혜택으로 경험할 수 있고, 일정 시대 특정 무용에 고정되어 있는 무용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이 학교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무용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무용 교육의 장을

8) 컴퓨터 과학자들의 random access

9) 미국은 1994년 연방법으로 무용을 학교의무교육으로 지정했다(NCAS in dance)

10) Conférence de press de Jack Lang,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Orientations pour une politique des arts et de la culture à l'école, le 14 decembre 2000.

넘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공헌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무용의 역사성이 존재한다. 시대별 무용의 특성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시대별 무용의 가치

구분	technic & choreography	concert dance	service dance
내용	훈련과 교육	시각적 제작	platform으로서의 전문가
과정	신체의 기능성	star system	리서치, 관찰, 참여, 협업
목표	작품의 예술성	경쟁력 산출	경험가치와 공유가치 창출

III 무용교과 내용 구조

무용을 포함한 모든 교과는 학문적 분류를 기반으로 명칭과 내용 그리고 방법이 정해진다. 무용은 언어나 문자 이외의 방식으로 전승, 기록되어 온 지식 중 하나로 문화유산 혹은 지식 기억의 문화 속에서 예술로 분류되기도 한다.

1. 무용교과의 학문적 가치

과거 작품성을 전제로 한 무용의 생산(창작)성은 지적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경쟁력에 초점이 맞추어진 무용의 효율성은 위계질서로 평가되었다.

동시대 인공지능(AI), big data 등의 첨단 기술과 융합이 빈번한 무용은 신체와 정신, 문화, 성별 등에 차별 없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포용과 혜택의 무용으로 향하고 있다.

포용 국가 포용 사회를 비전으로 한 최근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체제에서 무용은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소외를 최소화하는 ‘모두를 위한 무용(dance for all)’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사회문제 해결로서의 무용은 변화를 거듭하는 시대에 가치관 계몽의 방법으로 무용 공유(dance sharing)를 사회 제도에서 구현하였다. 이러한 동시대 무용의 가치 실현의 배경에는 지나온 시대의 무용에 담긴 지배 담론의 해체 작업의 의지가 있다. 1964년 Rainer, Y.(1964)의 ‘no manifesto’를 기점으로 20세기 중반부터 문화사학자, 철학자, 무용(예술)학자 등의 중요한 과제로 구 담론의 해체가 부각되었다. 무용에는 생성 당시 시대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 세대의 오도된 관념의 ‘미적 기준’에는 오리엔탈리즘을 포함하여 인종, 성 등의 각종 차별이 내재해 있다.

비유전적 문화 요소인 meme¹¹⁾은 삶의 기술을 압축적으로 전달해왔고, meme은 당시 개인들의 분투 속에서 삶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탐구하고, 문화적 DNA는 예술작품으로 계승되었으며 인류는 이러한 작품으로서의 기록과 전승을 고전(Classic)으로 분류하였다. 전승되는 고전 중 시각중심 미디어 중 하나인 무용은 감각적 인지를 통해 무의식을 형성함으로 텍스트(언어, 문자 등의 기호를 통한)를 기반으로 형성 되는 무의식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추상적인 가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도, 사회체제, 교육제도, 관습, 문화 그리고 일상적인 태도(禮儀)로 구체화되어 변형을 전제로 구축되고 또 붕괴된다. 고전이 전하는 자유, 평등, 진실, 공감, 정의, 사랑 등 변하지 않는 인간 가치가 존재한다 해도 그 가치는 실현되어야 가치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류는 불확정성의 시대라 불리는 지금, 불안을 삶이 지속되는 한 동반되는 본연의 심리 상태로 인식한다. 이러한 시대에 무용의 대상은 심리학에서 인간조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섬세한 공감의 위로가 요구되는 시대 의식은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심리학에 대항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되지 못한다는 논리에서 무용은 ‘불안, 공포, 폭력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겪는 사람들’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소수와 다수를 분리하는 기준과 분류법들이 개인을 무력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무용은 성찰과 표현 그리고 참여를 문제 해결의 실천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즉, 동시대 무용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개인에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나 창작자와 관객을 분리하지 않는 무용이다.

2000년 이후 service dance(공공 무용 또는 community dance)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무용으로의 해결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전제 한다. 이는 공유 대상이나 무용 전문가의 개별적 가치관에 근거한 비정형화 된 무용이 그 사례이다. 개인들에게 존재하는 각각의 자유와 존엄성의 갈망을 충족시키는 세계를 기대하는 공동의 가치 추구는 개개인의 인간을 훼손하지 않고 인간이 욕망할 수 있는 정의로움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제도 구축으로 실현되며, 무용은 이러한 제도 구축에 참여함으로서 무용의 시대 의식 즉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난 근대의 개인으로서의 인간 존재를 대상으로 했던 모던댄스의 시기와 와 보편, 동일, 독단, 위계질서에 저항하는 포스트모던댄스 시기 그리고 기술이 주도하는 융합시대로 분리하여 무용교과 즉 무용의 학문적 가치를 통해 시대 의식을 제시한 것이 <표 2>이다.

¹¹⁾Dawkins, R(1976), *The selfish gene*에서 사용한 용어

표 2. 무용의 학문적 분류

modern dance(1900 ~)	감성적 가치 : 지성과 감성, 신체와 정신의 분리에 반항
post-modern dance(1964~)	심리적 가치 : 개별적 자아(자존감), 표현을 통한 침묵과 몰이해에 대항
service dance (2005~)	접근성 주도의 섬세한 개별성 추구 : 개별적 자아들의 집단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집단성과 동일성의 차이

Lalande, A.(1947)는¹²⁾ “가치란... 대개 사실에서 권리로 바라는 것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옮겨감을 의미 한다”고 기술했다. 무용의 학문적 가치는 결국 되기를 희망하는 막연함에서 되기를 욕망하는 구체성인 동시에 무용의 영역을 너머 공동의 선 즉 사회적 가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용이 요소로 내포한 기능을 교육 체제에서 무엇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며 무용교과가 무용의 학문적 가치와 내용으로 개념 짓는 이유이다.

2. 무용교과와 내용과 접근 시스템

무용교과는 무용 전공 교육으로 분리되어 전문인 양성을 우선으로 체제를 구축하였다. 무대에서 공연되는 무용을 대상으로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진 학문적 분류에 의해 생성된 교육 체제에서의 무용교과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 무용이 독립 교과로 개설되면서 독립된 학문(예술)으로 교육이 시작되었다.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독립 교과(학문)로서의 교육 이전에 무용 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졌던 무용단 산하의 아카데미는 특정 장르의 춤을 위해 설계된 교육 시스템에서 실기교과의 훈련(연습)이 진행되었으며, 아카데미 시스템에서의 무용은 danse d'école로 불리어 지거나 훈련(연습)법 개발자의 이름을 붙여 전승되고 있다. 학교무용으로 번역되는 danse d'école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ballet classique(classic ballet)으로 이 무용 전공 교과는 5가지 발의 포지션과 팔의 포지션을 준수하고 그 기준에서의 공간과 시간의 이동과 지탱을 수준별로 판단과 평가가 가능하게 되어있는 경쟁 구도의 무용교과 교육 시스템이다. 신체의 기능성이 예술성의 기준이 되었던 고전주의 시대의 무용은 실기훈련 교육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후 국가교육 체제에 개설된 초·중·고등 무용교육기관을 교급별로 종합해 보면 예원학교(중학교 과정, 1969), 서울 예술 고등학교(1953), 이화여자대학교에서의 무용

¹²⁾Lalande, A.(1947), *Vocabulaire technique et critique de la philosophie*, paris: presses univercitaires de française (김화영 역, 2021에서 재인용)

과(1963) 개설로 국가 교육제도에서의 무용의 교과독립 시기가 정리된다.

유치·초등 교육기관은 생활·기본 교육의 단계이므로 학문의 분류 체계에 따른 교과 분리가 적용되지 않고, 생활 영역을 기준으로 통합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통합교육 시스템에서 유희, 율동, 체조, 보건의 교육 영역에서 무용은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중등 교육기관에서의 무용교과는 전문계열 예술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개설되어 있다. 중등교육기관에서의 무용교과 교육은 무용의 시대적 가치(개념) 혹은 사회의 요청에 따라 무용의 내용이 설정된다. 무용교과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의 분리와 통합 그리고 용어의 변경 사용의 기록은 시대적 무용의 가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에서 무용교과의 교육 과정은 전체 중등교육의 정부 고시 교육과정 체제를 기본 구조로 하고, 예술전공교과로 통합된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술들 - 음악, 미술, 무용, 문예 창작, 연극, 영화 - 과의 교육 내용 및 시간 그리고 용어 맞추기의 기준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무용의 학문적 가치 확장과 그에 따른 교육 내용의 시스템 구축이 시대 변화와 동반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균적 피드백을 통하여 교육 체제와 교육 과정을 변경하는 제도권이 새로운 가치 창출이 교육의 공통 목표가 된 동시대에 적용하는 방법은 현재 시행착오 중이다.

고등교육에서의 무용 전공 교육은 창의력을 갖춘 즉, 특정 분야에 국한된 전문가를 넘어 기술, 인문,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학제 융합 전문가 육성을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인재 교육은 학제간의 융합으로 전문성을 학습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의 과제를 안고 있다. 무용을 전공 교육과정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university)의 경우, 상경대학, 이공대학, 인문사회 대학 등 단과 대학(college)별 다양한 학문의 접근 방식이 융합된 거시적 시각으로 사회나 개인의 문제 본질을 발견하는 능력이 인간의 구조와 사회 환경을 연결하여 이해하고 해석하는 전문성이다.

공학 계열의 capstone 수업¹³⁾의 도입은 졸업 발표회나 졸업 논문에 대신하는 무용전공필수 수업으로 기획부터 결과 발표까지의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는 무용 교육 시스템 개발 - 커뮤니티댄스, 소외 계층 및 사회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젝트 무용 등-을 장려하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드라마를 시작으로 한 한류 열풍은 k-pop을 거치고 한국의 대중

¹³⁾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college) Cooperation+)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전국의 각 참여대학에서 전공 필수로 정해지면서 2017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www.sigmapress.co.kr).

문화 전반과 예술과 제품에 대한 관심과 선호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시대를 지나면서 창작과 생산, 예술과 제작, 대량생산과 다종류의 소량 생산, OSMU-one source multi use- 등의 용어가 더 이상 무용과 동반되는 것이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대립 구도나 기피 용어로 해석되지 않게 되었고 무용교과과정에도 안무-실기, 제작-실습, musical dance, hip-hop dance(혹은 street dance), k-pop dance, cover dance(또는 방송 댄스) 등의 용어가 공존하게 되었다. 작품 감상과 비평은 창작인과 관객, 전문가와 대중, 공연과 관람이라는 고착적 이분법을 전제로 한 용어로 구시대적 이론 교육으로 구분되는 반면, 동시대 무용에서는 무용의 제공자와 참여자 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공유와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무용 교육 전공자를 발기인으로, 시스템(혹은 제도)에서의 무용을 서비스 무용¹⁴⁾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무용은 사회적 제도에서의 무용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시스템에 무용을 내용으로 활용하는 등 무용의 요소를 내용으로 설계된 시스템에서 경험하게 되는 무용이다<표 3 참조>.

표 3. 무용 내용과 시스템

교과 내용	기대 가치	시스템
자의식, 자아인식	인식 주체로서의 몸 무용의 정신성	성찰, 참여
가치관의 다양성	공감과 배려	관찰, 확산적 사고
소통 매체와의 유기적 융합	정교한 구현력	공동체의 공유 시스템 디지털 미디어 연결망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서 무용교과의 가시적인 변화는 고등교육기관에서 무용학과가 명칭을 바꾸거나 전공이 통폐합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상에 대한 해석은 사실을 보는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하다. 인구 감소로 인한 학령제 인구의 비례적 감소, 산업화 사회에서 대형 축제나 공연에서의 경쟁력 약화, pandemic으로 인한 공연 무용의 침체, 무용 소비층의 한계 등을 통계수치로 읽기도 한다.

이전 세대 무용의 범주를 벗어나 있는 현대사회에서 무용은 예술적 창작에서 벗어나 산업, 경제, 사회 등의 영역에서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해결의 플랫폼으로 무용의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 다 학제 융합 전문가의 수렴적 사고는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게 한다. 일시적이고 물리적인 해결 방법 대신 지속적인 계몽과 선도를 전제로 한 자발적 변화 의지는 자아 인식과 자기 표현 의지에서 시작하여 자의식으로 이어진

¹⁴⁾복지 무용, 사회무용, 커뮤니티댄스, 제도에서의 무용, 프로젝트 무용 등 다양한 용어로 쓰지만 각각의 용어에는 미세한 차이들이 존재한다. 즉 시스템 구축에 참여 방향과 정도도 용어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 자의식은 개별적 변화 의지 즉 정체성 형성의 동력이다. 지적 가치¹⁵⁾와 창의성이 중시되는 미래 사회에서 무용은 개인과 집단의 잠재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이 주도하는 시대에 생활의 변화를 관찰하고 불확실성과 충격 그리고 불안을 개인적, 집단적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으로 무용을 공유하고 무용으로 각기 다른 생각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평적 관계 맺기를 시스템화 하여야 한다.

IV 결론

무용교과(전공) 교육은 무용의 학문적 가치에 따라 교육내용을 선정하며 교육내용은 시스템을 교육과정으로 학문적 가치를 실현한다.

무용의 학문적 가치실현을 위한 무용교과의 내용과 교과교육 시스템을 연결하여 동시대 무용전공(교과)교육의 가치를 통한 개념을 제시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유출하였다.

첫째, 인식주체인 몸으로 감각한 인지를 정신성으로 규정하는 무용 교육은 성장과 자발적 참여의 시스템에서 자아인식과 자존감 형성을 통한 자아의식을 내용으로 한다.

둘째, 공감과 배려의 사회 관여 무용은 자아인식의 관찰 과정에서 타인과 타 문화에 대한 공감을 수평적 접촉 시스템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셋째, 불안을 내재한 사회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교한 구현력을 요구하는 인간 중심의 무용은 전자-디지털 매체와의 연결 시스템에서 소통 매체와의 유기적 융합을 내용으로 하며, 숨은 조력자로서의 기술은 편안 가치를 제공 하여야 한다.

¹⁵⁾지식으로 갖게 되는 지성은 우리가 현실을 신뢰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극단까지 차단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게 해주는 인간의 잠재된 자질이다.

참고문헌

- 김운미(1998), **한국무용교육사**, 서울: 한학문화.
- 김화숙, 전혜리, 한혜리, 오레지나(2012), **Community dance**, 서울: 한학문화.
- 신정희(1996, 2003), “무용전문교육”, **무용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학문화.
_____(2013, 2015), “무용전문교육”, **무용교육론**, 서울: 한학문화.
- Camus, A.(1951, 2008), *L'homme révolté*, 김화영(역, 2021), **반항하는 인간**, 서울: 민음사.
- Dawkins, R(1976), *The selfish gene*, 홍영남(역, 2006), **이기적 유전자**, 서울: 을유문화사.
- Kealiinohomoku, J.(1969), “an anthropologist looks at ballet as a form of ethnic dance”, *Impulse*.
- Lalande, A.(1947), *Vocabulaire technique et critique de la philosophi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çaise.
- Lang, J.(2000), *Orientations pour une politique des arts et de la culture à l'école*, Conference de press de Jack Lang,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le 14 decembre.

www.sigmapress.co.kr

http://www.artscouncil.ie/Publication/curriculum_dance.pdf